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37호
12월 21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성경대로의 바른 지식, 철저한 믿음” 강조

2019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총회신학교·목대원 졸업예배



목대원 대성전에서 드려져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교단 신학원 이사장 조용목 목사를 비롯, 원장 임종달 목사, 총회장 신재영 목사, 교수진, 중진 목회자들과 성도, 축하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이날 예배는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총회신학교 교수 최병진 목사의 대표기도, 교수 이경진 목사의 성경봉독, 이사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마 7:13-27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경대로의 구속신앙을 고수하는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하며, 표리부동한 가르침을 배격하고, 진실한 회개와 복음을 믿는 신앙이 없는 종교적 행위와 업적을 무용지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신앙 노선을 견지하는 주의 일꾼이 되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윤기석 목사의 학사보고, 이사장 조용목 목사의 학위 수여 및 상장수여, 원장 임종달 목사의 학위 수여, 상장수여, 교단 직전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임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졸업생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축하였다.

임종달 목사는 졸업생들에게 모든 적합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축복했으며 교단 증경총회장 진동웅 목사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졸업생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재학생 대표 전봉희 원우의 송사, 졸업생 대표 김금자 원우의 답사의 말을 전했다. 예배는 사회자의 광고,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축도로 졸업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졸업생들은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조용목 목사 초청 송년예배 및 임직식

강릉시 소재 영동제일교회에서 열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 강조



이날 임직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성산감리교회 최영길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영동제일교회 찬양대의 찬양, 조용목 목사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마 6:3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

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진실하게 믿고 영접하면 내 중심, 사람중심의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중심의 신본주의로 삶이 변화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역설하고, 신본주의 신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대로의 믿음으

로 생활하며 착하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의 헌금기도로 1부 예배를 드리고 영동제일교회 김용덕 목사의 인도로 2부 임직식이 은혜롭게 거행되었다.

임직식은 임직자소개, 서약, 안수, 공포, 안수패수여, 기운축의 순으로 거행되었으며 임직자 대표로 김진태 장로가 교회에 헌물을 하였고,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축하의 시간에는 교단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영주중앙교회)의 축사, 강릉 선일장로교회 최승천 목사의 권면, 영동제일교회 김용덕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바쁜 가운데 강릉까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스승 조용목 목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순서를 맡아주신 선후배 동역자들에게 인사했다. 이날 예배 및 임직의 모든 순서는 교단 증경총회장 이윤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프루도초장은
바람을
스피네

조용목 목사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이 이루는 것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

일생 동안 환난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환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환난이든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환난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연단되어 신앙이 더 강해지고 순수하게 됩니다. 환난은 우리의 육신과 현실 생활에 고통과 손실을 입히지만 성도들은 그로 인하여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더욱 강렬하게 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도록 하는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보증입니다.(롬 5:5~8)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환난이 성도들을 절망하게 하지는커녕 오히려 소망을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영광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였습니다. 환난은 대체로 근심, 두려움, 슬픔, 불행, 상실, 고통, 이별 같은 것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라는 말에는 “가벼운”이라는 형용사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의 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에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가리켜 “가

벼운 환난”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누릴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당하는 손실, 희생, 핍박 등의 환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환난”이라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 것인지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 비교하거나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하여도,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환난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중에 당하는 환난은 반드시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셋째,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는 첫째로, 성도들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곤란과 환난이 이 세상에서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겪게 되는 곤란이나 환난이 신앙생활에 발전을 이루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고 간구하게 되므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셋째로, 성도들이 겪는 위기, 곤란, 환난 그 무엇이든 지면 훗날에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인근교회로 이전시 이명증명서 제출토록

교단 정책위원회

교단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지난 12월 10일(화)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모임을 갖고 본 교단 소속 지방회 교회의 성도가 인근의 다른 교회로 옮길 경우 교회 간의 불분사함을 방지하는 방편으로 성도가 교회를 옮기려 할 때는 이전 교회에서 이명증명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시행규칙 내용들을 결의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대표기도 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의 고후 2:15 말씀 본문의 설교가 있은 후 곧바로 이어진 회의는 서기 이용주 목사의 회원점명 후 조용목 목사는 그동안 총회의 운영상황에 대해 정책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총회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교단 교역자외도 격려금에 관하여 지급규정을 명확히 명기하여 지급내용에 대하여 혼돈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사)한기지협, 제28차 정기총회 개최

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만장일치로 유임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이하 한기지협)는 지난 11월 29일(금) 오전10시 30분 여전도회관 종려나무그릴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에 신신묵 목사를 만장일치로 유임시키는 한편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본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신신묵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이 좋지 않아 대표회장을 맡기 어렵지만 회원들의 성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겠다.”고 감사를 표시하고, “한국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인 이단과 사이버 근절, 이슬람교회의 침투와 동성애 대책 등 두뇌저 가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지협은 이날 2020년도 사업계획으로 “정직운동 세미나, 자살방지 세미나, 나라를 위한 기도회, 3.1절 100주년 기념예배, 부활절 축하예배, 6.25나리를 위한 기도회, 창립45주



년 기념예배, 광복절 기념예배, 제39차 세계평화의날 기도회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공동회장 김동권 목사 사회로 상임회장 김진호 목사가 시 84: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정직운동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으며, 공동회장 김사철 장로·공동회장 김해철 목사·상임부회장 장병찬 목사가 ‘총체적 위

기에 처한 나라’, ‘침체된 한국교회 개혁’, ‘현의회 발전과 시대적 사명을 위하여’ 특별기도를 인도했다.

예배는 고분 유희목 목사의 격려사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가입한 (사)파라타나세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강사랑 목사)에 대한 가입증서 수여 후 상임고분 서기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019 제1회 원로목사 찬양제’

숨은 실력과 솜씨를 발휘해 은혜 끼쳐

(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신신묵 목사)이 주최하는 ‘2019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찬양제’의 아름다운 선율이 기독교의 중심지인 종로에 울려 퍼졌다.

지난 11월 27일(수)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이준영 목사(조직위원회위원장)의 사회로 펼쳐진 찬양제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원로목회자들의 숨은 실력과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였다.

대회장인 림인식 목사는 “원로목회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번 찬양제가 말로 이제까지 드러낸 모든 예배와 경배의 정성이 될 것”이라며 “찬양 가운데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총재 정근모 장로는 축사에서 “찬양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며 “찬양은 성령의 비람이며 하나님의 임김”이라면서 축하를 전했다.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인 문세광 목사의 인사말과 집행위원장 김재용 목사의 대표기도 후 펼쳐진 각 단체의 찬양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은혜가 넘쳐흘렀다. 가장 먼저 등단한 목자성가대(지휘 차재연 사모)는 그동안 수요예배에서 수고한 노고에 많은 박수를 받았고 이어진 기악부(위원장 김강영 목사), 남성4중창(위원장 서태봉 목사), 하모니카(위원장 박봉서 목사), 독창(바리톤) 차모세 목사와 아코디언 연주 김인태 목사, 색소폰

연주 이창희 목사 등이 차례로 찬양제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소프라노 차재연 사모는 서정적인 목소리로 은혜를 끼쳤다.

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인 현광희 목사의 광고 후에 조직위원장 신신묵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준비위원장 이주태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대표회장)는 ‘2019 제1회 원로 찬양제’는 예배문화에 큰 획이 될 것이며 한국교회의 효용과 참여, 헌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장총, 나라사랑 미스바 기도운동 전개하기로

한국교회 연합위해 총회장들이 역할을 다하여 주기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수을 목사)는 지난 12월 10일(화) 회원교단 총회장 조찬간담회를 통하여 제37회기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회원교단 총회장들의 연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장들 외에 한장총 임원, 언론기자 등 23명이 참석하였다.

김종준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분회 상임회장)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진행된 가운데

김태영 목사(예장통합 총회장)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느 2:17)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설교를 통하여 김태영 목사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셔야 하며 이 일을 위하여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희선 목사(예장포아선 총회장)의 대표기도, 박남규 목사(예장

합동북구 총회장)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그리고 간담회 개회기도에 박남수 목사(예장개혁선교 총회장) 김영숙 목사(예장합동중앙 총회장)의 폐회기도로 끝을 맺었다.

김수을 목사(분회 대표회장)는 한장총 제37회기를 시작하면서 “총회장들을 한자리에 모여 사업을 소개하고 고전을 떨기 위하여 오는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모임의 취지를 소개하고 한국교회가 당면한 환경이 매우 위중한 때에 한국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총회장들이 역할을 다하여주기를 당부하였다.

한장총은 가장 주된 사업으로 나라사랑 미스바 기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회원교단 총회장들도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외의 사업으로 장로교 정체성회복을 위한 활동, 다음세대를 위한 사업, 연합활동, 건강한 사회를 위한 활동 등 5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성탄절 맞아 사랑 넘치는 부천시 되길

부기총, 라면 3,855박스 소외 이웃에 나눔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조예환 목사, 이하 부기총) 회원들은 지난 12월 9일(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부천시 관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라면 3,855박스를 기부했다.

매년 사랑의 쌀 나눔을 진행해온 부기총은 부천시장의 의견에 따라 라면나눔으로 변경 진행했다. 부기총 회원 교회들의 자발적인 섬김으로 총 5,000만 원 규모의 후원금이 모여져 3,855박스의 라면을 준비, 각 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운 형편의 시민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다.

이날 부천시청 앞에서 진행된 사랑의 나눔 행사는 조예환 총회장과 부기총 임원들, 장덕현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의원들, 시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김승민 목사(원미동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이기도 목사(주예수이름교회)의 기도, 총회장 조예환 목사의 인사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예수님 오심을 기해서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했다.

장덕현 부천시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흔쾌히 아주 많은 양의 라면을 기부해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아교회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및 헌당식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전파 위해 쓰임 받는 아름다운 교회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아교회(담임 강창훈 목사)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및 헌당식이 지난 12월 7일(토) 오후 3시 서울시 양천구 공달대로5길 41 소외예배당 3층과 4층에서 은혜롭게 드러났다.

강창훈 목사의 사회로 드린 1부 예배는 예장합동 함북노회 부노회장 송태기 장로의 대표기도와 함북노회 서기 이광선 목사의 성경봉독(출 40:17-38), 동아교회 성가대의 찬양, 강창훈 목사의 ‘아름답고 복된 교회’란 제하의 말씀선보, 합심기도 순서로 진행됐다.

강창훈 목사는 “30년 되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로, 권사, 교역자들 일꾼들이 정말 수고들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

다”며,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진 동아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발자취를 더듬어 살았다.

강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시작됐기에 동아교회가 아름답고 복이 있는 교회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개척멤버로 삼고 목회를 했다. 그리고 3년을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하고, 6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다. 1차 천일예배하기 두 달 전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떠밀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개척해 오느까지 오게 됐다”며, “출발과 진행,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동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하나님의 승리와 뜻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라고 감사했다.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 제38회 정기총회 개최

대표회장 김두형 목사 만장일치로 재선출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총재 우광순 목사) 제38회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28일(목)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제2연수실에서 열렸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상임회장 이형규 목사의 사회로 감사단장 김재철 목사의

협회가 임장, 여성상임회장 임종순 목사의 기도, 서기 김종연 목사의 성경봉독, 총재 우광순 목사의 고후 6: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란 주제의 설교순으로 진행됐다.

우광순 목사는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은

기쁨과 소망을 갖고, 항상 새 힘을 얻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위원 최경숙 목사가 나라와 민족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증경회장 홍화선 목사가 ‘본 협의회 총재 및 대표회장을 위하여’, 작전회장 라미화 목사가 ‘본 협의회 회원들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들인도했다.

계속해서 부총재 주화순 목사·부총재 최길준 목사·증경회장 김병호 목사의 축사, 명예총재 김응삼 목사·증경회장 노두진 목사·부총재 홍대선 목사·정용석 목사의 격려사 후 박찬봉 목사의 봉헌송, 회계 한한희 목사의 봉헌기도 후 총재 우광순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한성연, 사회복지 비전 컨퍼런스

회원교단서 주제 및 사례 발표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 대표회장 문정민 목사) 사회복지분과가 주최하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수 목사)가 주관한 제3회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사회복지 비전 컨퍼런스’가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0까지 서울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이룸극회의실에서 총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3회 컨퍼런스는 예배와 세미

나 순으로 순서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류승용 관장(예성, 비산종합사회복지관)이 주제강의를 했으며, 문순희 관장(이성, 상도종합복지관), 윤병성 목사(나성, 흥원교회), 조재학 목사(예성, 송계골교회)가 각각 사례발표를 맡았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김병현 목사(예성, 분과위 서기)의 사회로 드린 1부 예배에서는 박명목 목사(기성, 분과위원장)의 기도와 윤병성 목사(나성, 분과위원장)의 성경봉독 후 문정민 목사(한성연 대표회장)가 복지, 예수를 바라보며 합시다’(히 12: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지방회 부흥과 발전에 감사 드려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12월 2일(월) 오전 11시 태백전원교회(담임 엄기소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회원들은 먼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날 예배는 이성은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유흥열 목사의 대표기도, 엄기소 목사의 롬 7: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설교를 통해 “모든 일의 순서와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다”라며 “어려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원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킨 것은 성령의 은혜”라고 전했다.

이어 박규희 목사의 헌금기도와 강내실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월례회는 박순용 목사의 주관하에 진행되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올 한해도 교단과 지방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회 모든 회원들의 협조로 나날이 지방회가 부흥과 발전을 이룬 것에 감사의 뜻을 나누

었다.

오는 2020년 신년하례예배는 진주제일교회에서 드리기로 하고 이상래 목사의 기도로 월례회를 마친 후 전원교회에서 제공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순남 목사) 부산신학교(학장 한병집 목사)는 지난 12월 5일(목) 오후 7시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2019년 제2학기 종강예배를 드리고 한 학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에 앞서 부산신학교에서 준비한 비빔밥으로 식사를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갖고, 교무처장 서미곤 목사의 사회로 예배를 시작하였다. 예배는 김태주 목사(순복음 부산우리교회)의 대표기도, 가정호 교수(구약개론과)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가 교수는 시 27:1 말씀을 본문으로 ‘신학인의 목



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을 뵈려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며 신학생들과 예배에 참여한 모

든이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 신미경 전도사의 헌금기도,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역전을 소망하는 2020년을 기도하며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순남 목사)는 지난 12월 10일(화) 은혜순복음교회(담임 최계순 목



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님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증경지방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한석현 목사(순복음소

망교회)의 성경봉독, 증경지방회장 박용호 목사(순복음오일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약 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역전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의 선진들의 시련을 보면 그들이 승리한 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고난이 없으면 자신을 알지 못한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참고인내하며 견뎌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주의 종으로 만들어주며 잘했다 칭찬 받는 종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정희 목사(순복음아바교회)의 헌금기도, 증경지방회장 박용호 목사(순복음오일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월례회를 통해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한 뒤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12월 12일(목) 오전 11시 전주 터존부흥에서



송년회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증경지방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대표기도, 증경지방회장 김종호

목사(순창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롬 1:1-3 말씀을 본문으로 ‘정의와 불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증경지방회장 표재욱 목사(성령알곡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지방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눈 후에는 함께 묵회하며 피로를 풀고 서로를 위로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12월 12일(목) 오전 11시 전남 광양시 소재 순복음광양교회(담임 유용근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속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약 1:1-8 말씀을 본문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2019년 교계와 각 교회에서 여러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겨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가기를 권면하였다.

그리고 지방회 소속 교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는 2020년이 될 것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비란다고 전



했다.

설교 후에는 교단 총회와 교단 임원과 정책위원장 목사님과 교단산하 지방회와 모든 지교회를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증경회장 김강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동안 각 교회 행사로 미루어 놓은 각종 행정보고를 한 후, 순복음광양교회에서 준비한 애찬을 함께 나누며 2020년 신년하례식 및 1월 월례회를 기약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권점식 목사)는 지난 11월 26일(화) 오전 11시 포항시 남구 오전읍 정기로 1580번길에 위치한 한알의밀알교회(담임 신희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부회장 신희선 목사(한알의밀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은수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오경덕 목사(순복음한미음교회)의 약 2:17-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라는 제목의 설교, 회계 이순애



목사(순복음은혜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순복음반석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권점식 목사(순복

음늘푸른교회)가 교단과 지방회 보고사항을 전달하였으며, 모든 순서를 마친 후 한알의밀알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세속적인 것 버리고 거룩한 행실 다짐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이은승 목사)는 지난 12월 3일(화) 오전 11시 순복음반석교회(담임 조광선 목사)에서 송년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윤두환 목사(연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이정옥 목사(산성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윤장현 목사(송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윤 목사는 뱀전 2:1-10 말씀을 본문으로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거듭난 성도는 그 지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모든 세속적인 악습을 과감히 버리고 신령한 것 즉,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진대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거룩한 행실의 본을 보이며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것과 이러한 모습이 될 때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음”을 증거하였다.

아울러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하면서 모든 교회마다 양들이 풍

족한 것을 먹고 건강해져서 또 다른 많은 양들을 낳아 부흥할 것을 축복하였다.

이어진 합심기도 시간에는 그동안 순복음반석교회의 전임로가 막혀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주님 땅이 개발될 것과 이로 인해 도로가 개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다 함께 기뻐하며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어서 회계 김정순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헌금기도와 윤장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순서를 마쳤다.

이어서 속개된 월례회는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의승리교회)의 진행으로 각종 회무 처리를 은혜롭게 마무리 하였고, 곧바로 인근 뷔페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회원들은 순복음반석교회에서 제공한 한식뷔페 음식으로 맛있는 점심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매달 기도회로 모여 기도한 제목이 놀랍도록 신속하게 응답되었음을 간증하였는데 장세영 목사(순복음아멘교회)는 성전이전 문제가 기도한 그 다음날 아침에 응답되었음을, 손병진 목사(하나교회)는 세금 문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음을 간증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부흥사회 산행기도회,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회장 김기진 목사)는 지난 12월 12일(목) 새김전교회 및 낙동강 생태공원 일대에서 산행기도회를 갖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11시, 회원들은 산행에 나서기 전 개

회예배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상임위원 정석현 목사의 대표기도, 직전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고전 4: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 재무 조길수 목사의 헌금기도,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권면

직전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총회장 신재영 목사는 왕하 2:5 말씀으로 부흥사들의 지질과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섬김으로 점심식사를 나누고 낙동강 생태공원 근처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특히, 기도회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총회와 총회에 소속된 교회들을 위해서, 정책위원장과 교단 임원, 모든 교단 산하 목회자를 위해서, 절경과 연아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 목사들을 위해서 서로 깊은 기도를 통해 위로를 나누었다.

이후 낙동강 생태 자연 박물관을 견학하고 저녁식사 후 해산하였다.



■ 생명의 말씀 ■



김인찬 목사

· 교단 중정총회장
· 청신교회

하스기아가 왕이 되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쫓겨 못하고 그들의 법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스기아는 26살에 왕에 오르면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앗수르와의 동맹을 파괴합니다.

본문 18장 4절을 보면 앗수르 때문에 들어온 산당들 주상들을 하스기아는 다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스기아가 앗수르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없애버린 것들도 굉장한 일이지만 더 굉장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년 동안 놋뿔을 만들어 섬

긴 것이었습니다. 전통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뿔을 통해서 불뿔에 물려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놋뿔을 만들어서 그걸 보게 함으로서 백성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놋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스기아가 놋뿔 우상을 없애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8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하루아침에 제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놋뿔제단 그걸 건드리면 지금까지 섬겼던 많은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왕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분노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왕도 쫓겨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스기아는 백성들이 보물로 여기던 놋뿔까지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스기아는 가정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장 2절을 보면 하스기아의 외조모가 ‘스가랴’란 말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스기아는 철저하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란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교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스기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개혁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스기아는 왕이 되기 전부터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스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열어 주셔야지 앗수르에 쫓겨다니면 앗수르가 섬기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놋뿔을 모시고 이러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는 결국 왕이 된 이후 결단하고 다짐한 일들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스기아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라가 강성하고 복 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놋뿔과 잘못된 우상을 하스기아를 통해서 깨뜨리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법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성경

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데 내가 지금까지 놋뿔을 쳐다 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세상만 따라 갔구나”. 바로 그런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잘 되고 어디를 가든지 행동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스기아가 앗수르와의 동맹을 파괴하니 앗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185,000명의 정예부대 앗수르의 최정예부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85,000을 다 처리하고 정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서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 나를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가 부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서졌다가 내일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죽어지니 하나님이 그를 엄청난 사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포도도 으깨질 때 포도주가 나오고 밀도 다 부서져야 거기서 따끈따끈한 우동이

나오는 것처럼 하스기아의 개혁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된 것 모든 것들을 깨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날마다 깨뜨리고 부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가말리엘 최고의 명문 학부의 졸업생이었습니다. 귀족가문이고 머리로 똑똑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부셔뜨려야 합니다. 내 고집, 내 교만 부셔뜨려야 합니다. 올라가고 싶은 내 명예 부셔뜨려야 합니다. 부셔뜨리면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하스기아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앗수르의 우상과 이스라엘의 놋뿔을 깨뜨려 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들 죄의 모습들을 용기있게 깨뜨려 버리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 정

UPMA 이사장 취임 박정곤



미전도종족선교연대(UPMA)가 지난 12월 11일(수) 부천 참빛교회에서 이사장 이 · 취임예배를 드리고, 2020년에도 한국교회 미전도종족 지역정보에 더욱 앞장서기로 했다.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정곤 거제 고령교회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전도종족선교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가주 한인목사회장 이정현



남가주 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는 지난 12월 8일(현지시간), 미주평안교회(담임 이승진 목사)에서 제53대 회장단 이 · 취임식 갖고 함탄 출발을 알렸다. 신임회장 이정현 목사는 취임사에서 “남가주 각 단체 및 현교회와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며 좋은 일에 헌신하고 사랑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남대 인문문화상 발 무어 선교사



한남대 인문학술원은 지난 12월 4일(수) 정성균 선교관에서 제25회 한남인문문화상 시상식을 갖고 미국장로교(PCUSA) 선교사로서 35년간 일본에서 교육 및 의료선교, 복음전도를 활발하게 펼쳐온 빌 무어(William L. Moore) 선교사에게 제25회 한남인문문화상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소방인 ‘성탄축하 사랑의 음악회’



한국기독교소방선교회(회장 박응욱)와 부산기독교방선교회(회장 안상홍)는 지난 12월 14일(토) 오후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부산보훈병원 동관 7층 대강당에서 ‘성탄축하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출연자는 대부분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이었다. 음악회에 앞서 병실을 찾아 위로와 함께 기도와 말씀,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는 평화를

2019년에도 성탄절을 맞는다.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리기를 소망한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으나 세상은 여전히 탐욕과 미움, 혼란과 분노와 다툼으로 인간들은 더욱 사나워져만 간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평화와 생명과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아직도 인생들은 예수님의 첫 번 성탄 때처럼 죄악의 짐은 더욱 깊어만 가니, 하

나님께 근심이 아닌가.

진정 우리의 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가? 탐욕은 끝이 없고, 거짓과 싸움은 그칠 줄 모르니 어이할 것인가?

이제 돌아야 한다. 우리들은 너무 멀리 떠나 왔다.

그리고 낮아져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졌다.

또한 정직해야 한다. 거짓은 하나님께 미움이 된다.

많이 가지고도 만족을 모르니, 더 내려놓아야 한다.

목소리를 낮추자. 예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좀 불편하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

좀 더 부끄럼을 낄자.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

회개하자. 거룩함 없이는 누구도 주를 뵈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생자 인류의 구세주 앞에 영광을 돌리자.

세상을 향하여 외치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함)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 · 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한국동성애대책협의회 논평

“충신대학교에서의 동성애 반대 교육이 성희롱으로 판단되어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길 권고한다.”

충신대학교는 한국교계를 이끌어가는 최대 교단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로서 한국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는 충신대학교 내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에 앞장서 온 교수들 성희롱법으로 의심해서 조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며,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권고한다.

최근 충신대학교 총학생회 등을 포함한 5개 학생자치기구는 강의 중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촉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복음에 근거하여 동성애 반대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실한 강의를 해 온 교수의 발언까지도 일괄적으로 묶어서 성희롱으로 간주하는 대자보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 사회에서의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하여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심기 위한 강의 내용이 성희롱으로 왜곡되고, 대자보를 통하여 교수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마땅히 충신대 내에서 생기지 말아야 한다.

충신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하게 학생들을 불러서 성희롱과 동성애 반대 교육의 차이점을 교육하고, 대자보를 통한 교수의 명예가 실추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가르쳐야 했다. 충신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육 기관이기에,

학생들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따라 복음적 가치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바로잡는 노력을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런데 실추된 교수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학생의 입장만 수용하여 교수를 조사하려고 시작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교회총연합 등에서 학교 대책위원회의 인적 구성원에 동성애 반대를 성희롱으로 주장하는 학생 3명과 함께,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서울대 인권센터에 있었던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변 대책위 조사의 인적구성고 절차상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 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충신대가 동성애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책위원회에서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의 직접적 당사자들인 학생들을 배제하는 결정을 한 점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한국 교계의 우려를 학교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충신대의 건학이념에 어긋나지 않은 중립적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는 점에 대하여는 기대하며 주목하고 있다.

일반 대학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설립되어 지난 100여 년 오로지 복음에 따라 학문연구와 인성교육을 실시해 온 충신대학교에서, 복음에 근

거한 동성애 반대 교육과 성희롱을 구별하지 못하고 복음에 근거한 강의를 한 교수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입장만을 수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참담하다. 충신대는 학생들이 성희롱이란 이유로 교수의 강의를 접하고 바른 윤리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과 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

향후 공정하고 객관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소명과 심사가 이루어져서, 교수의 발언은 복음에 근거한 동성애 반대 강의일 뿐이지 결코 법적으로 문제되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급변 사안이 결코 징계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처리하지 않을 것도 강력히 권고한다.

만일 급변 사안을 징계사유로 삼는다면,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는 충신대에서의 동성애 반대 교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매우 우려한다. 충신대의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다면, 한국 내의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충신대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등을 돌리는 사태가 생길 것이다. 충신대는 어떠한 사유로도 동성애 비판 강의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2019. 12. 10.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성탄절 맞아 쪽방촌과 독거노인, 어르신 위한 뷰티서비스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WBH 이 사장 정한일, 회장 최에스타)는 12월 15일 마포구 대흥동 신생명나무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섬기는 발파서역 공동체 (사)해돋는마을(학장 최에스타) 소속의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와 장수사진 촬영 등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뷰티서비스에는 최에스타 교수(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와 임영래(마틴) 원장(어썸 헤어)을 비롯한 뷰티자원봉사자의 뷰티서비스와 김광용 사진작가(빛과 예술로 대표)의 장수사진촬영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12월 4일 WBH광주광역시 지회(회장 내명식 광주여대 교수)는 광주 남광주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려운 어르신께 헤어 및 핸드마사지 등 뷰티서비스를 지정한 교수(광주대학교 뷰티미용학과)를 비롯한 뷰티전문자원봉사자 19명이 참석했다. 또한 WBH는 21일 마포분대이케아센터에서 차메어르신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를 실시할 예정

이다.

(사)월드뷰티핸즈는 서울역 노숙자와 쪽방촌 및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과 다문화 가족, 북한동포,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기술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시켜 진행

하고 있다.

(사)월드뷰티핸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뷰티자원봉사자 신청을 받는다.

문의 02-706-5333 메일 wihngo@naver.com



2019년
결산

유관지 목사 // 한복협 감사, 북한교회연구원장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4:13)

올해 마지막 월례회를 가지면서 우리는 먼저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올해도 월례회를 빼놓지 않고 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온 것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모임에 나올 때마다, ‘한국교회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같이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합니다. 나올 때마다 매번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유익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한국교회가 바르게 나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월례회를 가지면서 수고하신 회장님과 임원들, 실무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회와 교계 매스컴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알릴만한 가치를 가진 일을 널리 알리는 것이 매스컴의 기본사명인데, 이 월례회는 알릴만한 가치가 넘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12월을 맞으면서 성경에서 ‘결산’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모두 네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세 번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18장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두 번 나오고,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한 번 나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마 25:19)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올해 얼마를 남겼나?’ 결산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늘(21)의 본문, 히브리서 4:13에 나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은 문맥을 알아야 하지, 한 단어나 한 문절(文節)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는 말씀은 다른 한글역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표준새번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

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 개정판」은 “피조물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문절 하나를 새롭게 기억하는 것은 적지 않은 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정권은 표로 결산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결산입니다.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결산을 두렵워해야 합니다. 역사의 결산을 받으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결산을 감사를 거쳐 이사회와 총회에 내 놓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인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재정을 운영할 때 신뢰받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CEO들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결산을 주주총회에 내놓고 평가를 받습니다. 크리스천 CEO들은 동시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인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을 알면서 기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독교실업인’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몇몇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결산으로는 적지 않지만, 하나님의 결산으로는 흑자인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결산으로는 참혹한 십자가,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산으로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최대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결산과 하나님의 결산, 우리는 어느 것을 따라야 할까요? 교회 재정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는 것과 재정을 성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과 저, 한국교회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CC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포럼

(사)한기보협, 법제화 적극 반대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12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여전도회관 14층에서 동 협의회 WCC반대위원회(위원장 박승주 목사) 주관으로 WCC,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법제화 반대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강의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김성립 목사(제지총회 총회장)의 사회로 김남순 목사의 기도, 박승주 목사(세계 선교연합 총무)의 성경봉독, 박보미 선교사의 특송, 박승

주 목사(WCC반대위원장)의 요 8:31~32절을 본문으로 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로 진행됐다.

박승주 목사는 설교를 통해 “진리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의 거하여야 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며 살 때 주님의 진리를 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소외된 자들을 사랑할 때 우리를 온전히 자유 하는 선한목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강조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2020 신년하례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교단총회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뱌교회

지도고문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회장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로교회

상임부회장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부회장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부회장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중교회

일 시 2020년 1월 13일(월) 오전 11시

장 소 은혜와진리교회 아가페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회장 김기진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서울서지방회



회장 고현규 목사
사랑장동체사랑교회



총무 우선원 목사
소명순복음

서울중부지방회



회장 김성규 목사
성복교회



총무 이인호 목사
홍재은교회



회계 정혜란 목사
은전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조선남 목사
대림별교회



총무 이회관 목사
순복음신나는교회



저무 회계 주청민 목사
별교회

서울강남지방회



회장 정경기 목사
성명가나눔교회



총무 이성호 목사
돌배개교회



서기 이현옥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저무 신영희 목사
부활순복음교회



회계 임중희 목사
참사랑교회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김국영 목사
진리교회



부회장 방정단 목사
임미누엘교회



총무 이경성 목사
사랑과성경교회



서기 심은애 목사
은혜사랑교회



저무 회계 김종숙 목사
회복교회

경기지방회



회장 전하혜 목사
열린한국교회



부회장 은국호 목사
선한웃음교회



총무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서기 이재환 목사
순복음비전교회



저무 우정순 목사
시온성순복음교회



회계 조관연 목사
드림교회

경기중앙지방회



회장 이은순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부회장 조관연 목사
순복음반성교회



총무 서기 윤두현 목사
호평순복음교회



저무 이정숙 목사
산성교회



회계 김정순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경기남지방회



회장 정석연 목사
순복음화랑교회



부회장 박흥렬 목사
오성사랑교회



부회장 김나순 목사
열린산수양교회



총무 서경연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서기 김훈순 목사
순복음전안교회



저무 정세창 목사
안성은교회



회계 표현자 목사
시냇가에있는나무교회



경기중부지방회



회장 이세연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총무 김동민 목사
동산중앙교회



서기 최나순 목사
영광교회



저무 조중순 목사
반성순복음교회



회계 박수진 목사
사랑의능력교회

은진지방회



회장 이석희 목사
대구는혜와진리교회



부회장 최현연 목사
영동포은혜와진리교회



총무 이도희 목사
전원은혜와진리교회



서기 김경연 목사
안양은혜와진리교회



저무 이재환 목사
부곡은혜와진리교회



회계 윤형연 목사
영통은혜와진리교회

경기서지방회



회장 김영관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부회장 김태권 목사
배근사랑중앙교회



총무 금기원 목사
알곡교회



서기 김진영 목사
다누리교회



저무 오정순 목사
주심김교회



회계 최영희 목사
예준교회

경기북지방회



회장 이경진 목사
다사랑교회



부회장 박세연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서기 육준수 목사
향기로움교회



저무 김인덕 목사
순복음봉향교회

용인지방회



회장 김희문 목사
은혜사랑교회



부회장 김인희 목사
순복음성광교회



총무 지용희 목사
새생명교회



저무 김동일 목사
기도하는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이관우 목사
주인의교회



부회장 조영만 목사
일신별교회



총무 회계 양호철 목사
빛과성령교회



서기 설수자 목사
순복음평강교회

김포지방회



회장 이득순 목사
푸른교회



총무 이근수 목사
우리순복음교회



저무 회계 김병숙 목사
양곡전교회

인천서지방회



회장 김경근 목사
영성순복음교회



총무 김진원 목사
예수이름교회



서기 손인환 목사
새생명교회



회계 김관현 목사
사랑의순복음교회

강원남지방회



회장 박세연 목사
원주성교회



부회장 이정은 목사
진부제일교회



총무 최정희 목사
성광교회



서기 정주영 목사
강릉순복음교회



저무 이종진 목사
주님의요양교회



회계 박규희 목사
원주성교회



회계 박규희 목사
원주성교회

강원서지방회



회장 박성우 목사
평강교회



부회장 정희자 목사
바울교회



총무 김재두 목사
순복음성산은혜교회



회계 김중배 목사
군업순복음교회

대전지방회



회장 정윤기 목사
대전영무교회



부회장 이매순 목사
한소망교회



총무 이민규 목사
좋은나무교회



서기 차재민 목사
열매열매교회

충서지방회



회장 안홍규 목사
한사랑교회



부회장 김영진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총무 회계 이만희 목사
송죽순복음교회



저무 오수경 목사
순복음장자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장호순 목사
금강순복음교회



부회장 원문경 목사
세종중앙순복음교회



총무 전홍식 목사
순복음성기는교회



저무 김영희 목사
순복음성대교회



회계 한정순 목사
예수사랑교회

청주지방회



회장 정익섭 목사
한소망교회



총무 김성경 목사
세계로교회

충주지방회



회장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장문교회



총무 윤성배 목사
한우리교회



서기 박성환 목사
달천순복음교회



저무 회계 이만규 목사
순복음새생명교회

충북지방회



회장 김경준 목사
후원순복음교회



부회장 신병식 목사
청주주사랑교회



총무 김 용 목사
새희망교회



서기 민병훈 목사
예광교회



저무 조재호 목사
창대교회



회계 정재현 목사
순복음성명성교회

전라북도지방회



회장 권우석 목사
창원순복음교회



총무 유영주 목사
열매열매교회



서기 권규식 목사
회복교회



회계 장동근 목사
순복음거제중앙교회

경남지방회



회장 권점식 목사
순복음늘푸른교회



부회장 신홍식 목사
한일일교회



총무 성기환 목사
방어진순복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부산광역시방회



회장 정영진 목사
순복음감리교회



부회장 박영욱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총무 조정우 목사
순복음주님의교회



저무 윤혜정 목사
순복음주선교회



회계 황연선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광주지방회



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총무 조갈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서기 김영호 목사
순복음은혜의강교회



저무 김정순 목사
은혜의복음교회



회계 배영예 목사
순복음열린교회

전남지방회



회장 유관영 목사
순복음좋은나무교회



총무 최광욱 목사
순복음제일교회



서기 이광호 목사
참라순복음교회



회계 박종석 목사
별빛연합교회

전북지방회



회장 심혜원 목사
임마누엘교회



총무 양희철 목사
창복순복음교회



서기 김현애 목사
꿈이있는교회



저무·회계 박운석 목사
순복음심원교회

전라지방회



회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총무 유은근 목사
순복음광영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서베드로 목사
목포시내산교회



총무 현기영 목사
장계순복음교회



서기 홍광희 목사
순복음예천교회



회계 민순복 목사
순복음새생명교회

제주지방회



회장 김경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총무 안재훈 목사
순복음만남의교회

충청남도지방회



산달순복음교회 류지석 담임목사 취임예배

경남지방회

경남지방회(회장 권우석 목사)는 지난 12월 9일(월) 오전 11시 산달순복음교회에서 담임목사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영주 목사(원빈엘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재무 장동근 목사(순복음거제중앙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권우석 목사(창원순복음교회)의 대상 4:9-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아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그리고 취임목사 서약 및 치리권 부여와 공포의 순으로 이어졌다.

지방회장 권우석 목사는 류지석 목사에게 산달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받게 됨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직분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조명식 목사(새장유제일교회)의 축사, 서기 광규집 목사(하목한교회)의 권면, 류지석 목사의 감사, 지방회장 권우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월례회 및 송년회 갖고 복음전과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12월 9일(월) 협동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에서 월례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임경영 목사(하늘빛교회)의 찬양인도에 이어 서경오 목사(복있는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배영철 목사(원진순복음교회)의 기도, 김미연 목사(열린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그리고 사모 중창단의 특송 후에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사 41:8-10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세워 주셨다. 이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이다.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와 영혼 구원이다.'라며 귀한 사명을 위해 불러 주셨으므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방회 회원들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이후 김진태 목사(선한열매교회)의 헌금 기도와 서경오 목사의 광고 후에 김기인 목사(원빈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협동산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고 지방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믿음으로 걷는 자가 되자!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정근 목사)는 지난 11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예수이룸교회



(담임 김진원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장 김정근 목사(명성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기 손인

한 목사(새벽교회)의 대표기도, 정진균 목사의 성경봉독, 총무 김진원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고전 4:1-2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걷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믿음으로 걷는 자가 되어야 함"을 전하였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회계 김리함 목사의 헌금기도와 중창회장 이창모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예수이룸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다과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2019년 지방회 송년 모임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이경진 목사)는 지



난 12월 14일(토)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지방회 회원 및 가족들과 함께 송년 모임을 갖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기도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회장 이경진 목사는 한해동안 교단과 지방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였다.

이날 회원들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여 서로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 회원들은 다사랑교회(담임 이경진 목사)로 자리를 옮겨 다과회를 나누며 한 해 동안 목회현장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새로운 다짐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목회를 다짐하였다.

ENHAKKORE MINISTRY

10기 훌륭한 군사 모집

TURN MY EYES AWAY FROM WORTHLESS THINGS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 119:38

2020. 01. 23 - 26

19세 이상 청년

괴산순복음교회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194-1

인터뷰 후 등록

010. 5145. 3816

뮤지컬에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반짝이는 별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는 반전

매년 12월에는 뮤지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극단 스타라이트의 공연이 막을 올린다.

올해도 뮤지컬 ‘스타라이트 스토리’ 두번째 앙콜공연이 선릉로에 위치한 파인트리시어터에서 개막된다.

딸을 잃은 의사, 시각장애인 소녀, 아이들을 꿈꾸는 보육원 소녀 등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지닌 주인공들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반짝이는 별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는 반전의 이야기들이 주된 소재이다.

‘뮤지컬 구원열차’, ‘뮤지컬 손양원’, ‘뮤지컬 문준경’ 등을 연출한 심윤정 연출자는 “이 작품을 통하여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공연에는 지난해 ‘뮤지컬 문준경’에서 백정희 전도사 역할을 했던 김지현 배우와 전지현 배우, 작곡과 극작가이기도 한 황병일 배우가 새롭게 합류하고 ‘당신의 인생카페’ 등 신곡이 추가됨으로써 더욱 신선한 재미와 감동 은혜를 선사한다.

공연은 12월 17일 월요일부터 30일까지이며 커피숍, 인터파크, 위메프에서 예매가능하다.



공부하는 스포츠팀, 학업과 각종 대회에서 뚜렷한 결과

글로벌선진학교 GVCS 스포츠인재양성 전략

2011년 국내 기독교 대안학교로서는 처음으로 축구와 야구 종목의 국제적인 스포츠 인재양성을 기치로 팀을 창단하여 스포츠 인재를 양성해온 글로벌선진학교는 공부하는 스포츠팀을 추구하며 지난 8년 동안 노력해 왔다. 지난 2016~2017년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스포츠팀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위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이를 잘 극복하여 2018년, 2019년 연속 학업성과는 물론 각종 대회에서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 각종 대회에서 지역우승 및 전국 대회 상위권 입상(음성 중학축구, 문정 고등학교축구, 문정고등학교 야구) 결과를 내었으며, 미국 MLB 캔자스시티 로열스 루키로 진출하는 야구선수나 미국 및 영국 주요 대학 축구부로 진학하는 등 글로벌선진

학교 스포츠부 졸업생 전원이 국내 및 해외대학에 진학하여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다.

향후 미국 펜실베이니아 캠퍼스 스포츠팀과의 협업과 교류를 통하여 스포츠 선진국 미국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야구부의 경우 2019년 10여 명 남짓한 최소한의 팀으로 지난봄에는 제3회 경북소프트볼야구협회장기 우승, 이번 가을에는 제43회 경상북도지사기 고등야구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축구부는 문정캠퍼스의 경우 2013년 창단, 꾸준한 향상을 보이다가 2018 고등학교 대통령배 전국 24강 토너먼트에 진출하여 스포츠계를 놀라게 하였고, 2019년 4월에는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축구 고등

부 준우승, 2019년 6월 금강대기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음성캠퍼스는 2017년 늦가을에 창단한 음성캠퍼스는 '2019 전국중등축구리그 꿈자람 페스티벌'에 출전해 전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상위권 56개 팀 스플릿 중 최상위 청룡그룹 조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 '왕중왕'이 되는 기염을 토했다.

글로벌선진학교GVCS 스포츠 인재양성의 특징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선수들은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일반학생과같이 영어로 진행되는 물입교과를 수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학교과정 선수들은 기초체력과 기본기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학습기반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젊고 유능한 지도자들에 의한 청소년기 발달과정에 부합한 과학적인 훈련을 통하여 무리한 훈련에 따른 신체발달과 체력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중학교과정을 마치면 외국어 사용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각 대륙별 진로 트랙을 통해 국제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였다.

넷째, 스포츠 선진국 대학 및 프로팀에 진출하기 위하여 영어는 물론 대륙별 진로 트랙에 따른 제2외국어(스페인어, 독일어)의 소통능력을 강화한다.



신간안내

청교도 신앙 - 그 기원과 계승자들



1950년대 초 청교도 및 개혁신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제임스 패커 등이 주축이 된 청교도 연구 모임이 시작되었다. 이 모임의 강연과 토론은 그 자체가 논문일 정도로 대단히 심도 깊었다.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은 1959-1978년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 청교도 연구 모임에서 매년 발표한 19회분의 강연을 묶은 것이다. 그가 밝혔듯이 연구 모임의 목적은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동일한 문제와 역경을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옛부터 배우는 데” 있었다. 특히 현대 교회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강연 주제로 삼았고, 이 책은 성경 강하나 교리 설명보다 인물, 역사에서 도출한 교훈을 살피는 데 역점을 두게 되었다.

저자/역자 : 마틴 로이드 존스/서문 강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19-12-05 | (150*225)mm 608p | 판매가 : 33,000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365일 묵상

우리는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고,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또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안개 같은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미래가 오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맞이하는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새벽 혹은 저녁 한적한 때에 비쁜 일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지난 20년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패낸 이십여 권의 책 중에서 베스트 내용을 추려 구성한 묵상집이다. 저자 : 한홍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19-12-17 | (145*210)mm 408p | 판매가 : 19,000원



바디메오 이야기

마가복음 이야기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임을 역설한다. 바디메오 본문은 전체 16장의 마가복음에서 단지 일곱 절에 불과한 한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을 깊이 묵상한 저자는 '제자도'라는 보석을 발견해 냈고 이를 책으로 풀어냈다. 누구나 '제자도'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고, 비참함이 묻어나는 표정을 지을 것이다. 하지만 제자도는 어떤 행위의 자체나, 제자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무나 규율을 지키기 위해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값을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저자 : 이장달 | 출판사 : 요단출판사
발행일 : 2019-12-11 | (148*210)mm 152p | 판매가 : 10,000원



사랑하면 행복한다

마음에서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지요. 은혜를 받고 나니, 부모님 대에 늘 커져 있는 TV가 새롭게 해석됐습니다. '아, 누군가와 대화하느라 그리워서서 그렇게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는지도 모르겠구나' 아버지들은 보통 외롭게 살아왔으니까 말입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어머니를 안으셨습니다. 그것도 서울 마장동 길거리에서 택사에서 내리면서 제가 반강요하듯 권하니까 허허, 웃으면서 어머니를 살짝 안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웃음도 기억이 납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유일한 포옹이고, 제가 지금까지 본 포옹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포옹입니다. 사랑하면 편지를 쓰세요. 안부를 전하세요. 전화를 하세요... 저자 : 김동인 | 출판사 : 토브원출판사
발행일 : 2019-11-22 | (142*215)mm 274p | 판매가 : 13,000원

<http://agpgs.aogk.org>

2020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 형 료 : 50,000 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한국기독언론대상, 해외선교부문

CTS 특집다큐멘터리 은혜의 증인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한국, 호주 선교 130주년을 맞아 제작한 특집다큐멘터리 '은혜의 증인들'이 제11회 한국기독언론대상 해외선교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기독언론대상은 바른 언론과 건강한 기독교 문화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 한국 기독교계가 제정한 상으로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공평과 정의, 나눔과 생명 사랑의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추천, 참 언론의 빛을 발하며 기독교 정신을 녹여내는 언론인들을 선정하여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11회 한국기독언론대상 선교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CTS 특집다큐멘터리 〈은혜의 증인들〉은 한국, 호주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 생존 호주선교사 영상인터뷰 위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로 인터뷰 프로젝트는 2009년 한국, 호주선교 120주년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호주 멜버른의 한인교회들이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인터뷰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故 헬렌 매켄지를 비롯해 생존 선교사 22명이 들려주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 선교 지역, 부산·경남지역 복음화 역사와 한국전쟁과 민주화운동 등 격동의 시기에 느꼈던 소

감, 한국 선교 시 겪었던 울고 웃는 에피소드 등등이 생생하게 담겼다.

또한 생존선교사 영상인터뷰의 기획자이자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러로 참여한 과천교회 주현신 목사(한국-호주선교 130주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의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 방문현장과 前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립형석 총회장, 한국-호주선교 역사를 공부한 3인(이상규 석좌교수/백석대, 정병준 교수 서울장신대, 탁지일 교수 부산장신대), 최초 한국계 주한 호주대사 제임스 최(최 웅)의 인터뷰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은혜의 증인들을 만든 제작진(CTS 이계선, 황세준 PD, 김지영 작가)은 10년 전, 한국, 호주 선교 120주년을 맞아 호주 선교사들의 한국선교 역사와 의미를 담은 특집다큐멘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제작, 세계적인 기독교방송협회(WCBA, Worldwide Korean Christian Broadcasters Association) 방송대상 TV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10년 전 수상에 이어 130주년 기념다큐멘터리 〈은혜의 증인들〉까지 수상한 것에 대해 수상소감을 밝혔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오직 성경말씀으로 하는 능력전도!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가 능력전도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초청을 받아 갔다. 이미 다른 전도법을 많이 해보았지만 그다지 결실이 많지 않았는데 능력전도란 과연 무엇일까? 궁금증을 안고 현장전도에 나섰다. 강사 박영수 목사를 바짝 따라가며 지켜보았는데 이제껏 많은 방법의 전도를 보았지만 이런 전도는 처음 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길가는 낯선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하면 바로 그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전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접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본인의 이름을 알려준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자신의 신상을 알려 주는가?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현장전도에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가족세트전도 훈련을 받기로 굳은 결심으로 등록했다.

하루는 박영수 목사가 새벽전도를 지도해주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초겨울 새벽. 교회 주변 상가, 버스정류소, 아침 출근길의 사람들과 상인들을 전도하며 영접기도를 받고 교배도 붙었다.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졌

을 느꼈다. 현장전도로 한 청년이 교회에 나왔다. 식품점가게 주인은 사업장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실제로 1호 사업장 예배를 인도했다.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고 현장으로 나가서 가족세트전도로 열매를 맺고 있다. 영접기도 받은 명단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계속 중보기도를 한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야한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최고의 선물이 전도다.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그 열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주님의 기쁨의 도구되길 원한다.

목회생활 30년 동안에 이렇게 기쁨으로 전도한 적은 처음이다.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상명령 잘 수행하며 살고 싶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교회 감태석 목사, 윤미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기아대책, 제3회 평화그림엽서대회 시상식

아동노동 문제 관심 촉구 위한 캠페인... 1만여 점 접수

아동 노동 없는 세상을 위해 1만 명의 학생들이 마음을 담아 엽서를 모았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제3회 평화그림엽서대회 시상식을 지난 12월 6일(금) 오후 서울 강서구 기아대책 사옥에서 개최했다.

올해 3회를 맞은 기아대책 평화그림엽서대회는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개최돼 해마다 약 만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하며, 기아대책이 주관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올해 대회는 파키스탄 벽돌공장 지역에서 하루 종일 벽돌을 찍어나야 하는 아동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아동 노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약 1만 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중 외교부장관상(대상) 2명, 최우수상 6명 등 85명의 학생이 시상대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벽돌공장 미술 아동들을 위해 희망을 담은 알파벳 그림책 만들기'를 주제로 작품을 응모했다. 파키스탄 아동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다양한



단어를 다양한 색깔의 그림으로 소개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참가자들이 만든 작품은 책으로 만들어져 파키스탄 벽돌공장 지역에서 기아대책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보낼 예정이다.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영경(예일디자인고 2학년) 학생은 알파벳에 해당하는 직업을 소개하는 그

림을 통해 벽돌공장 학교 아이들이 미움받지 않을 꿈을 펼쳐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다. "배움과 성장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며 "연필 대신 벽돌을 잡고 있는 아이들이 다시금 연필을 들고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시상식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현)는 지난 12월 11일(수)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서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주최하고 (주)한샘이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미혼한부모에 대한 차별,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홀트아동복지회 흥현국 이사장, 김호현 회장, (주)한샘 이영식 부회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영예의 대상에는 김수민 씨가 출품한 'T'mok'가,

최우수상에는 공주님나라의 '미혼부 인육씨의 평범한 일상이야기'가 선정되는 등 접수된 50여 개 작품 가운데 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최종 수상작이 거러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여성가족부 장관상)에게는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상) 상금 200만 원, 우수상(홀트아동복지회 회장상, (주)한샘 회장상) 각 100만 원, 장려상(홀트아동복지회 회장상)에게는 각 50만 원이 수여됐다.

홀트아동복지회 김호현 회장은 "미혼한부모가족

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아겠다"며 말을 전했고, (주)한샘 이영식 부회장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을 응원하며, 하나의 가정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저희부터 앞장서 인식 개선에 힘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주)한샘은 2019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미혼한부모가족의 심리정서지원, 물품 지원, 직업 훈련비 지원, 임직원들의 약정 기부로 진행되는 미혼한부모가족 긴급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전국여교역자국 2019송년예배

“하나님과 동역하라!”(고전 3:9)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오직 한길 더욱 진실한 주의 종 다짐



사회
백영자 목사
여교역자국장

전국여교역자국(국장 백영자 목사)에서는 지난 12월 16 일(월) 오후 1시 대림벤엘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에서 2019년 송년모임을 갖고 마지막 때를 지내며 WCC를 비롯 성경을 외국하는 기쁨과 이와 뜻을 같이 하는 WEA, 한국 교회 일부 교회 등 이단 사이비가 횡행하는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땅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대림벤엘교회 강수용 전도사를 비롯한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교역자국장 백영자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예배부장 조병희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전복지방회 임성에 목사의 특송, 대림벤엘교회 박홍배, 김용미 집사의 특송-색소폰 바이올린 연주, 여교역자국 고문 정부용 목사(대림벤엘교회 당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말씀증거를 통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함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어려운 모든 환경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한 뒤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오직 한길로 나아가는 진실된 교단에 속해 있음을 감사드리고 더욱 진실한 주의 종이 될 것과 지도자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된 지도자 성경적 지도자, 성경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김순자 목사의 헌금기도, 충남지방회 회원들의 헌금찬양, 여교역자국장 백영자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에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고문 정부용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회원들은 예배 전 대림벤엘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고 사람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송년감사예배 후에는 교육관으로 옮겨 찬양과 함께 사랑의 선물 나누기, 성경 빙고게임, 이구동성 성경인물맞추기 등 열기로 가득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도 대림벤엘교회에서 정성으로 섬겨주어 전 회원이 설렘과 맛있는 푸주에서 만찬을 함께 하고 각 임지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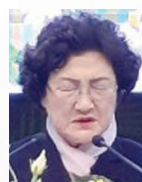
회원들은 한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것은 돌아보아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더욱 알찬 새로운 한해를 맞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다짐하고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알찬 새해를 열어가기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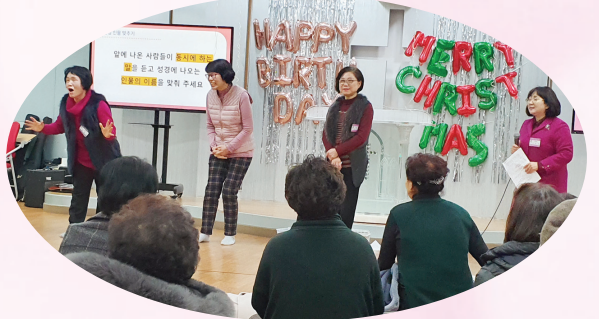
설교
정부용 목사
고문
교단 전직부총회장



대표기도
조병희 목사
예배부장



헌금기도
김순자 목사
홍보부장



주제: “하나님과 동역하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2019년 여교역자국 송년예배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대림벤엘교회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나의 길을 가리라

훌륭한 사람이 못 되어도 그리 좋은 사람은
못 되어도 꼭 필요한 사람은 되어야 한다.

개울을 가로질러 외로운 길을 걷더라도
빛나고 찬란한 업적에 박수갈채가 없어도
주님이 아시면 족하여,
감사와 기쁨에 웃음 한 모금 담아 나의 길을 가리라.

소박한 민들레 바람에 흩날려 날려 보내듯,
바람이 길을 몰면 사뿐히 떠나려나.

어디로 얼마나 가야 할까? 기약도 정처도 없이 가지만
난 꿈을 잉태하여 간다.

더 멀리, 더 높이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려놓는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그곳.
나를 나로 만드신 이가 주신 땅이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듯이,
듣는 것도 전부가 아니어서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소리 나는 것이 탄식이요, 보이는 것은 아픔일 뿐이다.
내가 탄식하므로 자리를 뜰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뿌리를 내리리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눈길이 나를 지키시니,
나는 달 차지 못하고 태어난 늦둥이 아들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나의 길을 가리라.

주님사랑합니다

사)한국기독언론협회, 제16회 정기총회 개최

회장 문병원 국장 연임, 언론 환경 개선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키로

한국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밝은 미래
를 열어가는 사)한국기독언론협회가 지난 12월
13일(금) 서울 연지동 모처에서 제16회 정기총회를

열고, 교계 주요현안 및 협회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총회에는 14개 회원사 중 12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문병원 국장(한국
교회공보)의 회장 연임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며, 교
계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협회의 주력 사업에 힘을
실었다. 문 국장은 최근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는 회
원사들의 운영난에 우려를 표하며, 안정적인 언론
운영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에 주력할 것을 약속
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역량 있는 교계 언론
들이 대거 신규 가입을 신청해 관심을 모았다. 기독
교한국신문(국장 유달상 장로)을 포함해, 기독교포
츠신문(발행인 박종현 목사), 국제기독신문(발행인
홍계환 목사), 경남기독신문(발행인 김현주 목사)
등이 협회에 새롭게 가입하며, 교계 정화 및 언론
발전에 함께하기로 했다.

사설

최대의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기이하고 감동적인 사건은 없
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상 최대의 기쁜 소식이며 가장
놀랍고 위대한 소식이다. 허다한 천군과 천사는 노래하기
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하였다.
아시아선지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
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
다”(마 4:16)라고 예언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과 질병과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
작할 무렵 나사렛 회당에서 아시아 선지자의 예언 가
운데 “..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
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
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하신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였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
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다. 기적을 베풀어 풍림을 잠
잠케 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시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첫 열
매가 되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여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정국을 극한으로 몰고 가며 비광 끝 전술을 펼치는
북한은 아직도 ‘한반도 공산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를 앞세운 무력사용도 불사한다는 자세이다. 이
에 정부의 “전쟁은 없다”는 단일한 상황인식은 국민들
의 안보의식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어려운 한반도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는 그 어떤 해
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기적의 하나님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께 우리는 기도해
야한다. “..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
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 31:6) 예수님은 정한 때에 다시 오신다. 영원히 주님
과 함께 살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
할 준비는 됐는지 살펴보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 되기를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
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
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정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명실
상부한 목회자로서 정예의 과정을 마친 총회신학교 사
이비신학교, 총회 목회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총회 목회대학원은 지난 12월 16일(월) 졸업식을 갖
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한탄 발걸음을 내디뎠다.
졸업생들은 이제 목회현장에서 미래를 선도해 가는 목
회자로서 점차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일꾼으
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변화의 시기에 점차 교단과
교계를 이끌어갈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대
에 부응하는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한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많은 졸업생들이 목
회 임지를 찾아서, 각양각색의 사명과 그릇대로 목회의 일
선에 나서게 될 것이다. 사명자로 기본교육을 마친 졸
업생들은 목회현장에서 새로운 만남과 사역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졸업생 모두에게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간곡히 권면한다. 신학교에 첫발을 내
디뎠던 첫 발걸음과 마음가짐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정
직하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한다.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찌하듯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 졸업생
들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여 맡겨진 일에 크
게 성공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
5:14)라고 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항상 몸으로 실행하
자. 세상은 언제나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 모두들 목이
마르고 타들어 가고 있다. 새신랑 · 신부와 같은 새 출
발의 전도자를 모두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졸업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
선을 다한 자기개발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한
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해,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 받
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2020 신년축복성회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교단총회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번영교회

지도고문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회장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상임부회장

서정식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북면교회

부회장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부회장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중은교회

일시 2020년 1월 13일(월)~15일(수) 오전 11시
월 저녁 7시부터 낮 오후 2시, 저녁 7시

장소 순복음빛된교회(조은혜 목사 시무)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29번길 14(010-5649-5121)

주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회장 김기진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4회 실행위원회

일 시 2020년 1월 6일(월)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 소 총회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 02)2675-5181~3

참 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증경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2월 20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신재영
총무 목사 이경진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교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접수: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